구름보기와 구름타기

(행7:1~8)

1.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2.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5.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6.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사백 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7.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 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8.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구름보기와 구름타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구름보기와 구름타기’

경포호수에 공원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벚꽃이 아주 만발해서 볼만한데, 그 경포호수 주변으로 약 5Km 정도 되는 거리를 아주 예쁘게 포장해놓고, 자전거 길과 산책길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 안쪽의 트랙 옆에는 호수를 따라서 조각들이 있는데, 바로 경포호수로부터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허균과 허난설헌 생가가 있어서인지, 홍길동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주욱

조각해서 놓았습니다.
홍 판서와 아내의 모습이 청동으로 조각되어 있고, 홍길동을 낳아준 홍 판서 댁의 시비였던 춘섬의 동상이 있고, 율도국 사람들의 모습, 등등 쭈욱 있다가 맨 마지막에 칼을 치켜든 홍길동이 구름을 타고 있는 모습이 동상처럼 서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50 중반을 넘었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약간 설레요.
구름을 타고 가는 홍길동의 모습.
홍길동전에 보면 호풍환호 하는 도술을 쓰지 않습니까?
바람을 부르고 비를 자유자재로 불러대는 그런 도술을 쓰고, 팔도에 나타나는 둔갑술을 사용하고 하는데, 구름을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근데 그렇게 가슴이 뛰는 이유가 단지 무협소설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내 현실인 거예요, 내가 지금 구름을 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구름을 타고 직장생활을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구름을 타고 가정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구름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름을 탑니다.
구름을 타보신 적이 없으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름을 타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름 타고 간다는 깨달음이 없으면 잘못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름을 보고 사는데, 구름을 보고 살려면 땅을 딛어야 됩니다.
땅에다 발을 디디고 살아야 구름을 보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름을 타고 삽니다, 구름을 타려면 발을 땅에서 떼야 됩니다.

오늘 스테반의 설교 속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달라요.
베드로 사도는 곧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주된 핵심으로 삼아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테반 집사의 설교는 설교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가 직접 나오지를 않습니다.
갑자기 좀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아브라함의 얘기가 불쑥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요

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성막과 성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독특해요, 이제까지의 흐름과는 너무나 대비가 되는 겁니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 되셔서, 교회행정과 구제보다는 기도와 말씀사역에 전념하는 사도들과 같은 모습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 얘기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주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난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얘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천 명의 아브라함이 생기고 만 명의 아브라함이 생기고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의 아브라함이 생기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이 보여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도 일어나야 될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별 얘기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셔서 하란으로 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옮겼지만 사실은 한 뼘도 땅을 얻지 못했고, 그냥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질 땅이라는 것을 약속만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구름 타는 아브라함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구름을 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구름 탐의 원조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구름을 타고 살았는데, 그 구름 타고 사는 삶이 예수님 때문에 전부 우리의 것이

되었다, 내가 이제는 구름 타고 살게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구름 탄 이야기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얘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망각할 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굉장히 오해하게 됩니다.
그 오해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얘기와 땅을 떠나라는 얘기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얘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영광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등 한 사람에게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마음에 관심의 순서와 관심의 크기에서 하나님이 1등을 했다는 얘기에요.
1등 했다는 얘기는, 아내 사라보다, 자기의 부모보다, 심지어 자신의 몸보다, 그 마음의 관심의 순서가 하나님이 더 먼저이고, 관심의 크기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자기의 몸, 삶의 터전, 집, 밭, 친척, 가족, 아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관심의 순서에서 1등이었고, 관심의 크기에서 1등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아브라함의 관심의 순서와 관심의 크기에서 1등을 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땅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름을 올라타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하란이라고 하는 땅을 떠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땅에 발을 딛고 살던 아브라함이 땅에서 발을 뗀 겁니다.
땅에서 발을 뗐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올라탄 겁니다.
하나님이 삶의 기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움직이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조건이 형성되면서 땅에서 행동의 동기를 부여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서부개척시대에서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하던 개척민들의 의지를 갖고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서부 쪽으로 움직여서 새로운 땅에 가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서 아름다운 나의 삶의 터전을 확보하리라는 꿈을 갖고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골드러시처럼 금을 찾아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꿈이 있고 자기의 비전이 있어서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움직인 겁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해서 움직입니다.
이 땅에서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이유가 땅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구름을 탔기 때문인 거예요.
삶의 터전이 되는 이유는, 그 삶의 터전으로부터 내가 행동의 이유를 찾을 때,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직장에서 내가 잘 보여야 되겠구나, 일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다 행동의 동기가 삶의 터전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떤 장소나 어떤 공간이 내 삶의 터전이라는 것은, 그 삶의 터전으로부터 내 행동의 이유를 찾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인 이유는 가나안 땅이 좋다거나 하란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라탄 거예요.
더 이상 발을 땅에 딛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하나님을 딛고 서있습니다.
하나님을 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구름을 타고 움직이는 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75세 때 하란을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50년이 넘도록 자기 소유의 땅을 한 뼘도 갖지를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고 하셔서 옮겼지마는 땅 한 뼘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산 땅이 127세 된 아내 사라가 죽을 때, 그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산 무덤 자리, 막벨라 동굴이 첫 번째 땅입니다.
그러니까 137세에요, 75세에 떠나서 137세가 되도록 땅 한 점 없다가, 처음으로 소유한 땅이 무덤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땅 대신 약속만 주어졌습니다.
스테반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걸.

그 약속이 뭡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에서 1등이 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서 구름을 타게 됩니다.
이 땅의 조건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니까 구름을 타고 움직인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땅에서 발을 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발을 뗀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밑그림을 갖고 계셨다는 얘깁니다.
아브라함이 발을 뗀 땅 위에 어떤 일을 벌이실 것인가에 대한 스케치를 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끄집어내서 네가 지금 딛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이 일이 예수님 믿을 때 내 일이 되고, 바로 이 상태가 복의 근원의 상태라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이 되는 바람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때문에 움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 벌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나 혼자 서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라고 하셔서.
내 행동의 이유가 이 땅에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도 그 돈을 벌려고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망할 것 같아도 그것에 대처하지 않습니다.
발을 땅에서 뗐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만 움직입니다.
이게 구름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럴 때 내가 발을 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스케치를 하십니다, 밑그림이 있어요.
그 밑그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름 타고 있을 때.
그러므로 직장에서 구름 타는 거예요.
기도하고 직장을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직장에서 정해진 일이 있어서 정해진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승진해야지, 사장님께 잘 보여서 인정받아야지…' 이런 동기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직장에 있으면서 직장을 떠나는 겁니다, 직장에서 구름을 타는 겁니다.
직장에서 구름타기가 가능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름을 탔듯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구름타기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구름 탔던 것처럼 구름타기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세상에서 발을 뗍니다.
발을 뗌과 동시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속해있는 직장에서 당신이 역사하고 싶으신 밑그림을 갖고 계신다는 얘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게 바로 이 밑그림이고, 이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발을 뗄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일이 주님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타셔야 되요.
구름을 타고, 이 세상은 내가 뭘 하겠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비전을 세우고 계획하고 진땀을 흘리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홍길동이 구름타고 움직이는 것처럼 구름타고 쓰~윽 지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을 때는, 이 땅을 내가 땅따먹기 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확장하려 하고, 좀 더 높이 쌓으려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성취하려 합니다.
그런데 구름을 탄 사람은 땅에서 허덕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데, 내 마음에는 이미 영광의 하나님을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관심이고 제일 큰 관심거리이니까.
하나님을 갖고 발을 땅에서 떼고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을 살기는 사는데, 구름타고 움직이니 거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발을 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밑그림을 갖고 계셔서 그 밑그림대로 이루어나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밑그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스테반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섭니다.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보았듯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반이 죽었지만 스테반이 죽은 뒤로 이방세계를 향한 복음전파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바로 스테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바뀌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뒤집어지는 역사까지도 이어져나가는 겁니다.
땅에 발을 딛고 땅을 기반으로 이 땅에서 내가 얻고 싶은 것들, 이 땅에서 행동의 이유를 찾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발을 떼고 구름을 타고 사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얹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얹어지려면 발을 떼야 하는데 어떻게 발을 뗍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발을 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올라타고 하나님을 올라탄 채로 이 세상의 삶이 진행될 때에 내가 발을 뗀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밑그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성취해나가십니다.

오늘부터 구름타고 쉬~익 쉬~익 날아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땅에 발을 딛고 구름을 보며 살지 말게 해주시고,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붙잡음으로써 땅에서 발을 떼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며 만족해하고 기뻐하면서, 발을 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밑그림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감사만 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